

발해만 해상유전 기름유출 사고

CNOOC-Phillips 합작 유전에서 ... 중국 최대의 유전지대

중국 보하이만(발해만) 해상유전에서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양국은 평라이(蓬萊) 19-3 유전에서 발생한 석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7월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라이 유전은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미국 ConocoPhillips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실제 운영은 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가 맡고 있다.

면적이 3200km²로 중국 최대의 해상 유전인 평라이 유전에서는 6월 초부터 유막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전 운영 측이나 해양국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서야 누리꾼들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다만, 아직도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기름이 서해로 유입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는 뒤늦게 성명을 내고 “기름 유출은 이미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바다 위의 기름띠 회수작업도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하이만은 중국 최대의 석유 산지로 중국 석유 생산의 57%, 천연가스 생산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4>